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괌	파견 학교명	UNIVERSITY OF GUAM
	파견 시기	[2026]학년도 [여름]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GLOBAL LEARNING & ENGAGEMENT		ENGLISH ADVENTURE PROGRAM

체험수기

1.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 괌에서 유일한 대학교이고, 학교가 넓음. 층고가 높지는 않고, 조선대학교처럼 단과대 별로 건물이 띄엄띄엄 있음. 건물이 비슷하게 생겨서 길 헤매기 쉬운데 첫날 캠퍼스 투어를 하기도 하고 강의실-점심 먹는 곳-교내 카페 이런 주요 장소를 며칠 다녀보면 익숙해짐. 학교에 나무도 많고 잔디도 많아서 예쁘고 날 좋을 때 사진 찍으면 잘 나옴.



(셔틀버스 내린 후 강의실 있는 건물까지 가는 길)

2. 파견 전 절차

- 단기 연수 자체는 학교 포털시스템으로 신청하고 합격자 발표되면 국제협력팀에서 단독방 만들고 온라인 OT로 장학금을 위한 항공권, 여행자보험, 수업료 납부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해 주심. 조선대학교랑 ‘괌연정’이라는 영어연수 센터(?)랑 연계되는 시스템 같은데 현지에 가면 괌연정의 관리하에 생활하게 됨. 5월 중반쯤 괌연정에서도 단독방 만들어 주셨고 자체 온라인 OT 따로 했는데 출국 서류(여권, ETA, 세관신고서, 입학신고서), 현지 생활 관련해서 설명해줌.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단독방이나 개인 카톡으로 여쭙볼 수 있었음. 그 후로 비행기표 예매-수업료 입금-출국 서류 준비하고 현금 일부 환전하고 출국함.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 수강 신청은 따로 없고 일정이 짜여있음. 첫날 오전에 레벨 테스트 목적으로 교수님 3명 중 랜덤으로 간단하게 면담하고, 종이에 주제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자기 생각 영어로 적어서 제출함. 오후에 결정된 반에 가서 각자 교수님과 수업 시작함.

- 기숙사는 교외 기숙사라는데 호텔이고 학교에서 3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는데 아침마다 숙소로 셔틀버스가 와서 타고 감. 기본 4인 1실이고, 같은 학교 학생이면 같은 방 요청할 수 있음. 공용 주방에서 조리해서 밥 먹을 수 있음. 숙소 건물 안에

공용 세탁기랑 건조기 있어서 보통 룸메이트끼리 모아서 빨래 돌림. 숙소가 투몬 비치 근처여서 바다로 산책이나 수영하러 자주 나갈 수 있고, 거의 가장 번화가라 유명한 음식점이나 가게 웬만한 거 다 있음.



(연수 마지막 날 짐 싸고 찍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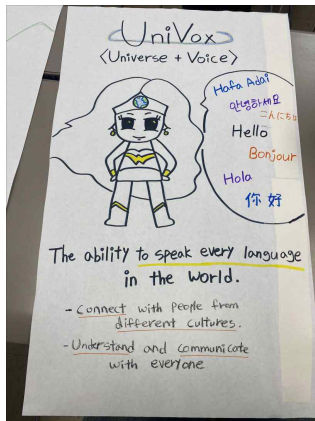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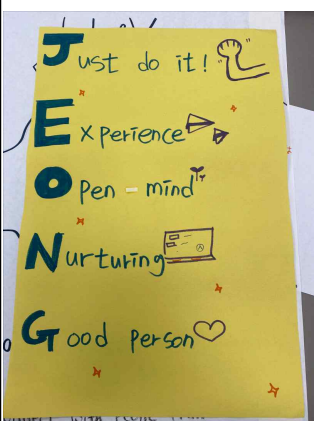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 한국 : 국제협력팀, 괌 : 광연정 김영진 본부장님, 스틸라 선생님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 수업은 간단한 영어 캠프 같은 느낌임. 영어로만 듣고 말하는 수업이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음. 문법은 8 품사 종류랑 해당하는 단어 쓰기 정도였고 4주 수업 대부분이 영어로 발표하는 거였음. 주제를 주고 종이 나눠주면 내용 쓰고 그림으로 꾸며서 앞에 나가서 발표함. 주로 그때그때 랜덤으로 팀 짜서 팀별로 완성해서 다 같이 발표하는 거라 큰 부담은 없음. 괌 가기 전에 저번 연수 후기 보고 발표 많다길래 걱정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임. 수업 주제는 괌 문화와 관련된 게 많았고, 거의 하루에 끝내는 활동이 대부분인데 마지막쯤 며칠 동안 준비한 큰 주제는 괌 문화와 한국 문화 비교하는 프레젠테이션한 건데 다 같이 하는 거라 어렵지 않음. 전반적으로 무난했음.



- 사진1, 사진2 : 수업 초반 개별 활동(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게 그림과 글 쓴 후 발표)
- 사진3 : 마지막 문화 비교 발표를 위한 PPT(팀별)

2. 외국어 습득 정도

- 학교 수업에서는 어휘가 늘어났다기보다 계속 교수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듣다 보니 귀가 트이는 느낌이었음. 광연정으로 연수 오는 학생들 도와주는 현지 버디들이 있는데 버디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외국인과 말할 때 스스럼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는 느낌은 있음. 한국 친구들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 영어 능력을 크게 높이기에는 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족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3. 학습 방법

-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하면 딱히 그 외로 공부할 일은 별로 없음. 하교 후에는 친해진 다른 학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랬음. 대부분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하는데 가끔 과제 내주실 때는 숙소에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음.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게 생기면 부담 없이 교수님께 물어서 해결할 수 있음.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 짐 목록(참고하세요) : 옷걸이, 멀티탭, 110V 변압기, 드라이기(숙소에 한 개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챙김), 간단한 외출 가방, 샤워기 필터, 빨래망, 샤워볼, 수건, 방수팩, 빗, 양치 도구, 고데기, 선글라스, 세안용품, 비상약(벌레 물린 곳 바르는 약-벌 보러 갔을 때 모기 엄청 물림, 밴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슬리퍼, 화장품, 옷, 아쿠아 슈즈, 텀블러, 노트북(태블릿), 지갑(현금, 카드), 양우산

- 광은 관광지라 원래도 물가가 비싼 편임. 사 먹으면 기본 15불 이상임. 이번에 갔을 때가 환율이 가장 높았을 때라서(약 1,530원) 비싸게 환전해두고 광에 있을 때 서서히 떨어지더니 귀국할 때쯤 최저로 떨어져서(약 1,420원) 손해를 조금 본 느낌이긴 함. 밖에서 먹는 거는 비싸다고 생각해야 하고 마트에서 장 보는 거는 무난했던 거 같음. 그래도 한국보다는 비쌘.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골통, 통신 등)

- 점심은 학교에서 나오고 석식은 미리 신청하면 숙소로 배달이 옴. 해서 먹거나 밖에서 사서 먹으려고 처음에 신청 안 했는데 중간쯤 귀찮아져서 4주 중 중간 2주만 신청했는데 좋았음. 점심 도시락보다 더 잘 나옴. 첫 주는 적응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서 먹고, 마지막 주는 한국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서 먹으니까 2주만 신청하길 잘했다고 생각함.



- 사진1 : 점심 도시락(이런 구성인데 주마다 구성 자체가 바뀌긴 함.)

- 사진2 : 석식 도시락(한식 위주로 잘 나옴. 복날에는 삼계탕도 나옴.)

-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안 다치고 안 아프도록 조심해야 함. 실제로 다른 학교 학생 한 명이 알레르기 증상으로 병원 갔다가 200달러 이상 깨졌다고 했음. 간단한 상비약은 꼭 챙겨야 함.

- 동키나 케이마트 등 대형마트, 숙소 주변(투몬 비치)에도 ATM기는 꽤 있어서 돈 뽑는

거는 무리 없었고, 그중에서 Bank of Hawaii가 수수료 없이 출금 가능했던 것 같음.

- 교통으로 버스는 배차도 엄청 길고 딱히 한국처럼 버스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비추함. 같이 갈 인원이 많으면 택시 불러서 n분의 1 하는 게 무난함. 아니면 버디들과 친해져서 버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음.
- 통신은 로밍했는데 esim 썼던 친구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느렸음. 로밍이 속도는 훨씬 나았고, SKT 쓰면 한국에서 쓰던 요금제 그대로 추가 요금 없이 쓸 수 있어서 esim 쓰던 친구들도 로밍으로 갈아타기도 함.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 광연정에서 ‘광짜’ 이라고 그때그때 볼링, 포켓, 별 보러 가기, 선셋 보기 등 여러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런 거 최대한 참여하면 좋음. 담당분께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건의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심. 광 영화관에서 영화도 봄. 기본적으로 버디들이랑 친해지면 많이 즐길 수 있음.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 프로그램 비용 : \$2,960(당시 환율이 1,530원 정도라 실 입금액은 460만 원 정도였음), 프로그램 비용에는 수업료, 숙소, 셔틀버스, 평일 점심 포함임)
- 항공료 : 왕복 64만 원(대한항공 기준, 저가 항공사는 더 저렴했음)
- 여행자 보험료 : 5만 원
- 식비 : 평일 석식(2주) \$150(현지에서 현금 결제), 외식(주말 포함) 약 60만 원
- 통신비 : 기본 로밍은 한국 요금제 그대로 씬. 기존 요금제 데이터를 다 사용해버려서 추가 로밍비만 결제함(개인적인 할인받음) 33GB에 23,700원
- 돌핀 크루즈 : \$80(현지에서 현금 결제)
- 쇼핑은 하기 나름(보통 스투시, GPO 내의 CK/타미/로스 등 쇼핑하긴 함)
- 외식, 쇼핑 등 적당히 한다고 했을 때 경비 150~200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프로그램비,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제외)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보다 더 유연해진 것 같음. 귀국해서도 버디들과 DM 하면서 영어로 자꾸 말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느는 것 같음. 말로도 뱉는 게 조금은 쉬워진 느낌임. 광 자체가 관광도시니까 공부를 주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고 학교에서 수업 잘 듣고, 하교하고는 광을 즐겼음. 외국에서 한 달간 지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고, 엄청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생각으로 충분히 즐기고 옴. 광에 온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서 전국적으로 인맥을 넓히는 계기가 됨.
- 광은 완전 휴양지여서 한국에서의 걱정거리 생각날 거를 없이 편하게 지냈고, 정말 강추함. 비록 초반에 태풍 때문에 비행기 결항도 됐었고 정전에 단수도 있었지만, 이번 기수 친구들끼리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됨.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 잘 즐기고 왔으니 열심히 공부할 힘이 생겼고, 곧 졸업이기 때문에 따고 싶었던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임. 그리고 졸업 전까지 트여진 귀로 고득점을 위해 토익을 좀 더 준비하려고 함.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해보기.
- GP0라고 광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여기 브랜드들 할인 많이 하니까 합리적인 쇼핑 꼭 즐기시길 바람.
- 기본적으로 7월 광은 온도도 높고 습해서 밖은 엄청 더운데 실내엔 에어컨 빵빵해서 추울 수도 있음. 얇은 외투나 가디건 챙기는 게 좋음. 덥다가 갑자기 스콜성 비 내리기도 하니까 작은 양우산 챙기면 좋음. 근데 우산으로도 감당 안 되는 비가 내릴 때도 있긴 함.
- 바다 수영 많이 하려면 수경 가지고 오면 좋을 듯.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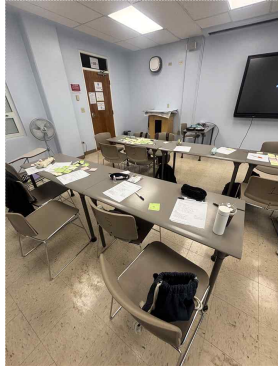


- 사진1 : 별빛 투어(별 잘 보이는 포인트 가서 별 보고 옴, 모기 많음 주의)
- 사진2 : 돌핀 크루즈(다 같이 크루즈 한 대로 이동해서 바다 수영, 스노클링 함.)
- 사진3 : 숙소랑 가까운 투몬 비치. 예쁘고 수영(특히 일몰 후), 산책하기 좋음.

이 사진 외에도 매일 무언갈 했고,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음.

CHOSUN UNIVERSITY 1946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미국		파견 학교명	광 주립대학
	파견 시기	[2026]학년도 [하계]학기		파견 기간	4주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단기해외영어회화		4주간 광 주립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어수업	
체험수기	I.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광 주립대학으로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				
	2. 파견 전 절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간단한 정보확인 및 준비해야 할 절차 확인 항공권 예약, 여행자보험가입, 수업료 납부 후 관련 서류 제출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의 공지 확인 후 기재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광 투몬에 위치한 교외 기숙사(오션뷰호텔)로 기본은 4인 1실, 비용추가 시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변경 가능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 062-230-6497 광 연정대 - 광대학교 현지 총괄 본부장 김영진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영어 문법이나 스피킹에 대한 수업을 주로 진행하였으며 광 문화에 대한 내용도 배워서 흥미로웠음.					
2. 외국어 습득 정도					
기간이 짧기도 하고 어려운 수준의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음. 영어와 친숙해지고 자신감 상승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음.					
3. 학습 방법					
4주 평일 오전 9시 ~ 3시까지 광 주립대학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함. 3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강의였음.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서류로는 항공권 및 여권사본과 숙소바우처를 준비해가면 유용함. 생활용품으로는 양우산과 텀블러를 매우매우 추천함. 입국 당시 환율은 1,530원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었음.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평일 점심은 광 주립대학에서 제공해주었으며, 저녁은 신청 시 숙소에서 제공해주었음 교통은 요청 시 주로 현지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도움을 주었으며, 불가능할 때는 셔틀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함 다만 와이파이가 확실하게 제공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넉넉한 데이터의 유심 또는 이심이 필요했음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멀지 않은 곳에 즐길거리와 관광지가 꽤 많음 프로그램 체험 활동으로는 아일랜드 투어, 돌핀크루즈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음. 중간중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줘서 관광 및 체험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 또한 앞에 투몬비치가 위치하고 있어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를 볼 수 있음.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프로그램 비용 (평일 중식, 기숙사, 등하교셔틀비 포함) - 약 450만원 항공료 - 약 70만원 식비 - 2주 석식비용 20만원 / 그 외 약 50만원 개인 경비 - 약 100만원 합계 - 약 700만 원 (학교 지원금 200만원 제외 시 약 500만원)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당시 태풍으로 인해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 비행기가 결항되고 기숙사가 단수, 정전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아쉬움이 많이 남음.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충분함.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으며, 이후 어떤 목적으로든 다시 한번 해외에 나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세부적인 진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으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싶음.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모두들 꼭 한번쯤은 경험해봤으면 하는 프로그램임. 물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였기에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보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 추천함. 긍정적 마인드 장착은 필수,, 4. 기타사항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	---



수업을 진행한 강의실



기숙사 방 내부